

# 부산시민 68%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잘하고 있다”

##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가덕도 공항 조기 개항 75.9% 긍정

부산시가 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2023년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주요 정책 이슈 ▲부산시정 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분야에서는 응답자 68.3%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대응을 비롯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4%에 불과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중점을 뒀어야 할 것으로는 ▲부산시민

과 국민의 유치 열기 붙임(28.1%) ▲ 중앙정부의 유치외교활동(26.2%) ▲ 부산시의 국가별 유치외교 활동(24.9%) ▲대기업의 협력을 통한 유치 활동(10.1%) ▲유명 연예인 등 케이(K)컬처를 활용한 홍보 활동(8.3%) 순으로 답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75.9%가 응답했으며,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기대되는 점으로 ▲각종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29.9%) ▲50만 개 일자리 창출(25.1%) ▲24시간 편리한 공항 이용(20.9%) ▲지역 균형 발전(10.6%)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제고(9.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요 정책 이슈 분야에서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 시민안전보험 등 1분기 시

정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이용)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았으나, 응답자의 75% 이상이 도움(이용)이 된다고 답해 꾸준한 정책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정 만족도 분야에서는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시정 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노력 정도, 앞으로 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해 지난해 4분기(63.8%) 대비 4.4%가 증가한 68.2%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또 부산시의 현재 시정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62.7%) 대비 2%가 증가한 64.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산시가 현재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전년 4분기(71.5%) 대비 0.4%P 소폭 떨어진 71.1%였다. 특히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시정 정책 추진 만족도는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45.9%) ▲청년 일자리 확충(23.3%) ▲출산·양육 지원 강화(13.3%)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11.8%) ▲주거 환경 개선(5.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부산시를 믿어주시는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홍보에도 적극 나서 부산시의 좋은 정책들을 부산시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주시 서천-원당천 보행로 준공

경북 영주지역 빛꽃 산책로로 유명한 서천과 원당천을 연결하는 보행로 공사가 준공돼 힐링 산책로로 거듭났다. 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천 합류지점~원당천 조암교 960m(테크로드 길이 442m, 흙콘크리트 길이 518m)구간의 보행로를 연결하고 30여개 보행등 설치를 완료해 시민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한편, 시는 원당천 상류지역 용암교~망월교~철탄산~서천교 구간 산책로 조성 사업도 진행한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g7677@

### 구미시 프리미엄 영호진미 육성 나서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단지 육성에 나선다. 프리미엄급 영호진미 생산단지 100ha를 육성해 고품질 쌀 재배 교육, 재배 포장 검사, 벼 수매시에 단백질검사, 제현물 검사를 거쳐 브랜드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영호진미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해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됐으며, 씹음수목 고소한 맛이 나고 부드러운 질감을 지닌 쌀이다. 또한 질소 비료를 감비해 밥맛을 더 좋게 유지하고 품질을 한단계 더 향상시킨 쌀을 말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 영천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협약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응원 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시, 환경부, 대구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팔공산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과 승격 이후의 체계적인 공원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사업 시행,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하동군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

하동 차(茶)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31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오는 6월 3일까지 하동스포츠파크(제1행사장)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제2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엑스포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은 박완수 도지사는 “하동 차의 진수를 알리며, 미래 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동 야생차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여수시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 기한 2026년 4월 30일까지 투자 금액기준 10억으로 상향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경도를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

년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지난달 30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일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 고시했다.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남도와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성명서 발표

평혜·편파왜곡 중단 요구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편혜와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육정미 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민이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피눈물로 호소한 값진 결실인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자의적인 주장으로 탄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km<sup>2</sup> 해제

### 국회·중앙부처 적극 협조로 당초 해지구모서 대폭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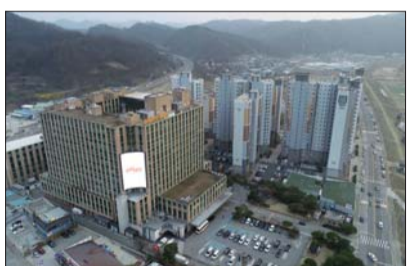
남해군은 최근 환경부가 개최한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남해군에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km<sup>2</sup>를 해제하기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0.03km<sup>2</sup>를 해제하기로 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남해군·남해군의회·상설협의체 등 민관이 합심해 군민들의 숙원 요구 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거둔 성과라는 평가다. 남해군은 2019년부터 의회 및 상설협의체와 함께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

역조정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대체 편입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협의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목도, 구들여, 백서 등 국가 부지를 대체 편입지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해제예정 구역은 상주금산지구 125필지 1.262km<sup>2</sup>, 남해대교지구 110필지 1.840km<sup>2</sup> 등 총 3.102km<sup>2</sup>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5월 중 공원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안동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

### 보건복지부, 올 2개소 추가 공모사업

경북도는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안동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총 14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현재 전국 8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2개소 추가 공모사업에 안동병원이 선정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동시협진을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신속한 치료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도비 3억4백만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센터 운영을 목표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응급실 내 일반환자 이용공간과 분리·구획된 정신응급환자 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안동병원 전경 사진.

용 병상 2개를 마련하고, 전담 전문인력 5명(전문의 2명, 전담 간호사 2명, 행정인력 1명)을 배치한다. 또 24시간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고 최대 3일간 관찰병상 체류 및 추가적 내·외과 진료를 시행하며,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게 된다. 최은정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과 집중치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